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스포츠 문화사

스포츠의 탄생

볼프강 베링거 지음, 강영욱 옮김



도쿄 올림픽이 중반 가량 진행됐다. 비록 코로나로 이전 대회만큼은 못하지만 스포츠팬들에게는 뜨거운 관심사다. 연일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도쿄에서 건너오는 승선보는 폭염을 잊어 주기에 충분하다.

사실 더 빠르고, 더 높이, 더 멀리를 지향하는 인간의 역사는 각본 없는 드라마 그 자체였다. 스포츠 역사는 인류 역사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문화는 스포츠와 함께 발달해왔다.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는 프리즘은 다양하다. 인물이나 사건 또는 자연이나 문화와 같은 틀로 분석할 수 있다. 스포츠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조망할 수도 있다. 스포츠에 깃든 열망과 탐의 역사를 통해 과거와 오늘, 내일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사 전문가인 볼프강 베링거의 책 '스포츠의 탄생'은 고대 올림픽부터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현대 올림픽까지를 아우른다. 인문학적 관점으로 스포츠와 그 이면을 살피고 있어 자못 흥미롭다.

책을 쓰기 위해 저자는 공식적인 문서 외에 서신, 회고록, 일기, 신문기사와 같은 자료를 참조했다. 당대 스포츠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하나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무엇보다 왜 몸을 움직이고자 했는지, 그 욕망의 서사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 스포츠를 정의하려는 시도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역사학자 관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를 탄생시켰다"고 볼 것이다. 최근 미국의 스포츠 사회학자 앨런 거트만은 스포



범그리스 제전에 참가한 선수들 모습, 기원전 530년경 암포라 장식화. 독일 뮌헨 국립 고대 미술박물관 소장.

츠는 즉흥적인 놀이 아닌 체계적인 놀이, 즉 게임으로 봤다. 여기서 게임은 경쟁적이며 신체적인 시합이다.

저자는 먼저 고대 스포츠를 소개한다. 근대 올림픽 전신인 고대 올림픽 제전과 범그리스 제전을 중심으로 인류 최초 국제적 스포츠 행사에 담겼던 종교적 의식 등을 다룬다. 회합을 뜻하는 '아곤'은 신의 보호속에 열렸고 회합이 열린 기념으로 장이 섰다.

중세사회에서 스포츠는 어떻게 수용됐을까. 당시는 사람들이 여유를 누리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중세시대만의 독특한 스포츠는 마상 경기였다. 기사(騎士)라는 새로운 사회계급 탄생과 십자군 원정기 기사제도 등이 갖춰지면서 등장했다. 이후 마상 시합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으로 퍼져나갔다.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포츠와 관련된 개념이 발전한다. 경기 규칙이 새롭게 정비되고 신체 단련을 위

한 이론서가 발행됐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귀족계급을 위한 스포츠 교육 기관인 기사 아카데미가 유럽 곳곳에 설립됐으며 스포츠 의학, 과학, 교육이 발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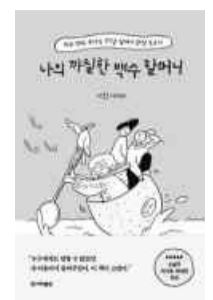
인류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했던 근대 초기부터 스포츠는 제도화, 전문화, 상업화된다. 특히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종목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 같은 요인을 종교 제한의 해제, 도시화, 세계화 등을 꼽는다. 또한 "경기 규정을 문서화하고 규정에 대한 구속력을 요구하는 스포츠 경기의 형식주의화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으로도 연관 짓는다.

현대사회의 스포츠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최고 선수의 인기와 소득, 프로 선수, 경기장, 정치인 참석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스포츠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된다. <까지·2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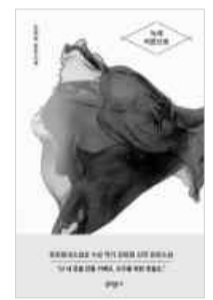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나의 까칠한 백수 할머니= '고독을 건너는 방법' '남자, 여자를 읽다' 등을 펴낸 40대 이인 작가가 90대 할머니를 돌보는 간병기를 엮었다. 작가로 살던 손자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느닷없이 '백 살' 할머니 피영숙의 간병인이 된다. 저자는 할머니와 삼시세끼를 같이 먹고, 거동을 돕고, 밤마다 자세를 고쳐주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 <한겨레출판·1만6000원>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미국 하버드대 법·뇌·행동센터의 수석과학책임자인 리사 펠드먼 배럿이 쓴 뇌과학 입문서. 책은 뇌과학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생명체에게 뇌가 왜 필요한지, 인간은 어떻게 1.4kg의 뇌를 갖게 됐는지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뇌는 사고를 위한 기관으로 여겨지지만, 저자는 '뇌는 생각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며 뇌의 역할은 신체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전한다. <다림·1만1000원>



▲녹색 커튼으로=2019년 문학동네소설상을 받은 등단한 강희영의 두 번째 장편소설. 유럽 패션 위크 기간 덴마크 한 골목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만난 모델 다민과 미숙한 사진가 차연의 이야기를 통해 예술의 본질을 탐구한다. 작가는 패션과 사진을 소재로 빠르게 부상하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유형의 시대에 진정

한 자아란, 그것을 표현하는 예술이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문학동네·1만2500원>

웃음=베르그송(1859-1941)이 웃음에 관해 쓴 논문 세 편을 묶었다. 저자는 웃음 뒤에 '집단'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웃음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웃음은 전혀 공정하지 않고, 선하지도 않다"며 "웃음을 그러모아 살짝 맛을 보면 철학자의 혀끝에는 약간의 씹쓸함이 감돌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문학다시읽기·1만1000원>

돕고 싶었고, 괜찮다 말하고 싶었고, 다정해지고 싶었다

날마다 만우절

윤성희 지음



'레고로 만든 집' '거기 당신?', '감기' 등의 작품집을 펴낸 소설가 윤성희가 세상을 보는 시선은 예리하면서도, 따뜻하다. 그는 신작 소설집 '날마다 만우절'의 '작가의 말'에서 자신에게 따라 붙는 꼬리표인 '위로'라는 단어가 싫었던 시기가 있다고 했지만, 그의 소설을 읽다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건너는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는 그 따뜻한 기운을 잊지 못한다.

신작 '날마다 만우절'에는 최근 작가가 전작하고 있는 노년여성 서사를 다룬 작품 등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쓴 열 한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표제작 '날마다 만우절'은 아빠와 싸운 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냈던 고모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3년만에 고모를 찾아가는 '나'와 가족들의 이야기로, 각자의 내밀한 사연들이 '거짓말'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가볍게 던져지면서 우리 삶에 여유를 만들어주는 건 아닐까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여성 서사의 슬픈 의제들이 곳곳에서 빛을 내고 있으니, 흘러 닷 잃으며 경험하는 이 놀라움은 윤성희를 읽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심사평을 받은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 '어느 밤'은 한밤중에 사고를 당해 낯선 곳에 홀로 쓰러져 있다가 구조되기까지 한 노년의 여성이 써나가는 자서전이다.

"퇴직을 하는 날, 나는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했다"라는 인상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여름방학'은 오랫동안 일한 회사에서 잘린 주인공 '나'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다. 오래 일한 자신을 위해 꽃다발을 사고, 축하주를 마시는 화자가 왜 이름을 바꾸려는지 들려

준다. 또 체육대회가 열린 날 동네 사람들이 먹을 음식에 농약을 넣어 어머니가 감옥에 간 후, 집을 팔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세 명의 자식들의 이야기를 담은 '블랙홀', 교도소에 있는 삼촌을 면회하는 화자가 떠올리는 과거의 삼촌 모습을 통해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위치'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10대 남자 아이가 화자로 등장하는 '눈꺼풀'과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밤', 대학교 신입생인 정민과 그가 한 눈에 반한 민정의 이야기를 풀어낸 연애 소설 '네모난 기억'도 실려 있다.

작가는 "책에 실린 소설을 쓰며 사람들의 마음에 뚫린 구멍을 들여다 보았다. 그들이 털 외로울 수 있도록 돕고 싶었고, 그들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고, 다정해지고 싶었다"고 말한다. <문학동네·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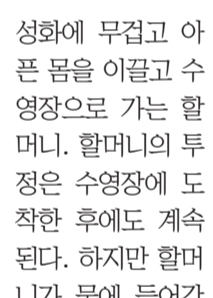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아이 수영장=아이 수영장에서 특별한 여름을 보낸 삼 남매의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 소설이다. 박희진 작가는 삼 남매의 시선을 통해 느리게 흐르는 여름의 주변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서술했다. 수영장에서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근사한 일탈을 계획하며 비밀을 공유하는 삼 남매의 우정이 사랑스럽다. 2019년 화이트 레이븐상, 2020년 독일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했다. <리암·1만1000원>



▲그래서, 동이가 뭐야?='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기 자신과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긍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고민해 보게 하는 책이다. 영국의 교육자 저스틴 행콕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피자 고르는 일 등을 통해 '동'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동'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또 일상생활에서 '동'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한다. <픽·1만4800원>



▲물속에서=수영장을 가지는 소녀의

성화에 무겁고 아픈 몸을 이끌고 수영장으로 가는 할머니. 할머니의 투정은 수영장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된다. 하지만 할머니가 물에 들어간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머니'와 '수영'의 조합이 신선하다. 박희진 작가는 물 속에서 느끼는 자유와 행복을 할머니를 통해 매우 익살스럽고 유쾌하게 표현했다. <길벗어린이·1만5000원>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